

‘가자! 원정 16강’ 허정무호 장도 올랐다

日 출국...24일 한·일전, 백업요원 내세워 ‘전술 테스트’ 주력

30일 벨라루스, 내달 4일 스페인과 평가전...5일 남아공 입성

한국 축구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유쾌한 도전’을 하려고 마침내 장도에 오른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2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희망봉’으로 가는 첫 번째 기착지인 일본으로 떠난다. 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30일 월드컵 예비 엔트리 30명을 확정했고, 10일부터 파주 NFC에서 마지막 소집훈련을 시작했다.

이어 16일 출정식을 겸해 에콰도르와 친선경기(2-0 승)를 치르고 나서 다음날 4명을 탈락시키고 26명으로 대표팀을 추려 담금질을 이어왔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볼턴) 등 해외 무대에서 한 시즌 동안 활약하고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들은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고, 허벅지 근육을 다쳐 재활에 전념하다 최근 복귀한 박주영(모나코)도 조심스럽게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에콰도르와 평가전에서 공격수 이동국(전북)이 허벅지 근육, 미드필더 김재성(포항)이 발목을 다치는 등 불의의 부상자가 나오기도 있었지만, 월드컵 출전에 대한 예비 태극전사들의 의지는 대회 개막이 다가올수록 강해지고 있다.

21일 오전 훈련을 끝내고 한국에서 마지막 외출을 허락받은 선수들은 이날 오후 파주로 복귀해 22일 오전 한 차례 훈련을 더하고 출국한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해외파가 참가할 전망이다. 성공적인 세대교체로 신·구 조화도 잘 이뤄져 어느 때보다 대표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유쾌한 도전을 해 보겠다”고 약속한 허정무 감독은 “선수들 모두 해내자는 의지가 강하다. 앞으로 본선이 다가오면 더할 것이다.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겠다”며 장도에 오르는 소감을 밝혔다.

대표팀은 24일 오후 7시20분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일본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벌인다.

월드컵 개막 직전, 적전에서 갖는 한·일전의 의미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지만 태극전사들에게는 최종엔트리 23명 안에 살아남으려는 시험의 연장선이다.

대표팀은 25일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노이스티프트로 이동해 시차와 고지대 적응을 하며 벨라루스(30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6월4일)과 평가전을 치른다.

벨라루스는 물론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챔피언이자 이번 월드컵에서도 강력한 우승후보인

‘무적함대’ 스페인과 평가전은 허정무호의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첫 관 상대인 그리스를 겨냥한 좋은 모의고사가 될 전망이다.

허 감독은 또 벨라루스와 평가전이 끝나면 최종 엔트리도 확정해야 한다. 최종엔트리는 6월2일 오전 7시까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해야 한다.

태극전사들은 스페인과 마지막 평가전 후 독일 뮌헨을 거쳐 6월5일 결전의 땅인 남아공에 발을 내딛는다. /연합뉴스

한·일 평가전 입장권 매진

일본축구협회(JFA)는 오는 24일 오후 일본 사이타마현의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에서 열리는 한국과 일본의 평가전 티켓 6만552장이 모두 팔려나갔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국민들은 최근 부진을 거듭하는 축구대표팀에 냉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가 ‘영원한 맞수’ 한국과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0남아공월드컵에 나서는 일본대표팀의 마지막 국내 평가전이라는 점도 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팀의 맞대결은 올 시즌 두 번째다. 지난 2월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첫 번째 대결에서는 이동국(31·전북)과 이승렬(21·서울), 김재성(27·포항)의 릴레이 골을 앞세운 한국이 3-1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위성미가 21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의 해밀턴 팜 골프장(파72·6585야드)에서 열린 사이베이스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1회전 4번홀에서 벙커에 빠진 볼을 칩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미 벙커 탈출

양용은 첫날 무난한 출발 HP바이런넬슨 1R 이븐파 38위

양용은(38)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HP바이런넬슨 챔피언십 첫날 타수를 잃지 않고 무난히 마쳤다.

양용은은 21일(한국시간)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즌스TPC(파70·7166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를 버디 3개로 만회하며 이븐파 70타를 적어냈다.

마른 번개가 치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경기가 4시간 가량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선수가 1라운드를 마치지 못한 가운데 양용은은 공동 선두 제이슨 데이(호주)와 조 듀란트(미국·이상 4언더파 66타)에 4타 뒤진 공동 38위에 자리했다.

10번홀에서 시작한 양용은은 14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몰에 빠트리 1벌타를 받고 네번째 샷만에 간신히 그린 위에 볼을 올리는 바람에 2타를 잃었다.

하지만 양용은은 18번홀(파4)에서 3m 버디 퍼트를 넣고 4번홀(파4)과 7번홀(파5)에서도 1타씩을 줄였다. 8번홀(파4)에서는 두번째 샷이 짧아 그린 위에 올리지 못한 것이 보기에 이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동갑내기 위창수(38·테일러메이 드)는 11번홀까지만 들었으며, 버디는 3개에 그친 반면 보기 5개를 쏟아내 하위권으로 처졌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컵대회 포스코컵 ‘킵 오프’

프로축구 리그 컵대회인 ‘포스코컵 2010’이 22일 막을 올려 오는 8월25일까지 3개월여 열전에 들어간다.

15개 팀을 3개조로 나눠 예선을 치른 뒤 8강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8월25일 단판 승부로 우승팀을 가린다.

예선리그는 지난해 K-리그 성적에 따라 A조에 전북(1위)·전남(4위)·경남(7위)·수원(10위)·강원(13위), B조에 성남(2위)·서울(5위)·울산(8위)·광주(11위)·제주(14위), C조에 포항(3위)·인천(6위)·대전(9위)·부산(12위)·대구(15위)를 편성했다.

예선 풀리그를 거쳐 조 1·2위에다 조 3위 3개 팀 가운데 성적이 앞선 2개팀이 8강에 진출한다. 상금은 우승팀 1억원, 준우승팀 5000만원이다. /연합뉴스

인테르 밀란-뮌헨, 챔스리그 결승 격돌

인테르 밀란과 바이에른 뮌헨이 이탈리아와 독일 프로 축구 명가의 자존심을 걸고 단판대결을 치른다.

인테르와 뮌헨은 오는 23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3시 45분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맞붙는다.

두 구단은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하면서 올 시즌 트레블(3관왕)을 이룬다는 데 공통점이 있어 함께 몸이 달고 있다. 뮌헨은 지난 9일 분데스리가를 평정한 데 이어 지난 16일 베르더 브레멘을 4-0으로 대파하고 자국 컵대회까지 석권했다.

인테르도 지난 17일 AS로마와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경쟁 끝에 세리에A 정규리그를 제패하고 앞서 지난 7일에는 이탈리아컵도 들어올렸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환축

▲이정훈·김춘미씨 차남 승우군 이영준(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인자씨 장녀 지현양=22일(토) 오후 2시 규수당 6층(루비홀) 02-332-9000.

▲김재하·김정자씨 장남 민호군 정후채·박성희씨 장녀 이수양=22일(토) 낮 12시30분 목포상그리아 비치호텔 8층(대연회장)

▲조두길(전 KBS 광주총국)·서순심씨 장남 경상(치과의사)·김동일(세무사)·홍인순씨 장녀 애진(치과의사)양=23일(일) 낮 12시 30분 상무리츠 컨벤션 웨딩

홀 1층(아이비홀)

무음

▲이경배씨 별세 소용섭·정심·정원·정숙·정란씨 모친상 이어일(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씨 빙

모상=발인 23일(일)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062-250-4455.

▲홍현순씨 별세 박혜천(강)·혜곤·혜인·소혜·소영씨 모친상=발인 22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이대형씨 별세 이상운·성진·성인·민자·경숙·영희씨 모친상=발인 22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의 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 사자입니다. 현대종합상조 권속도원 노주현 가임문의 1688-3740

마음까지 편안함- 금홍장례식장 홀 227-4000

故 정분숙 (여/89세)
 자녀: 김영관/유순희, 김동관/배금숙
 며느리: 김도순/양만국

故 최서애님 (여/85세)
 자녀: 김윤권/최정순, 김이연, 김상진/이정연, 김광남/임원희
 며느리: 김숙/이덕용

상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방문주차장 - 정갈한 음식!

추억의 낭만 콘서트

2010.6.13(일) 15시~19시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출연: 박정호, 김희선, 김희호, 박봉규, 한진희, 김원홍

광주 CBS 376-4466